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신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4.(일) 11:00 < 6.5.(월) 조간 > 배포 2023. 6. 2.(금)

K-바이오, 보스턴에서 세계(글로벌) 진출 나선다

- 「바이오 USA 2023」 계기 500여 개 한(韓) 바이오 기업·기관 해외 진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바이오협회와 함께 오는 6. 5일부터 나흘간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바이오(BIO) USA 2023」(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바이오(BIO) USA 2023」는 올해 31회째를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시·학술회의(컨퍼런스)이다. 올해 행사에는 MSD(Merck Sharp & Dohme), 화이자를 비롯해 85개국에서 9,100여 개 바이오 기업이 참여하여 혁신기술과 우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55개 기업·기관이 참여했고, 올해에는 두 배 이상인 544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참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2000년 이후 국내 바이오 기업을 위한 전용 전시·홍보관인 한국관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바이넥스, 유바이오로직스 등 20개의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한국관에 참가하여 제품홍보와 1:1 사업(비즈니스)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대형 바이오 기업 또한 자사 홍보 및 수주 활동을 위해 별도 독립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양국 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6. 7일 「한·미 바이오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는 올해 4월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체결된 양국 바이오협회 간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번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국내 주요 기업과 미국의 MSD, BMS(Bristol Myers Squibb) 등 빅파마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바이오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바이오(BIO) USA 2023」 행사 이후에도 양국 바이오 기업 간 협력이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행사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바이오융합산업과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3-4290)
		담당자	사무관	강홍구 (044-203-429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